

■ 브라질 여성의 어제와 오늘

박 원 복

브라질 여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굴까. 우선, 최근 들어 전 세계 미디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브라질 차기 대통령 지우마 후세피(Dilma Rousseff)가 아닐까. 두 번째를 꼽아 보라면, 백인이 주로 사는 브라질 남부의 히우그란지두술 주(州) 태생으로서 세계적인 모델이 된 지젤 번천(Gisele Carolina Nonnenmacher Bundchen)일 것이다. 지우마 후세피는 불가리아 이민의 후손으로서 1970년대 게릴라 활동을 했던 경력으로 인해 좌익 성향의 강한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 탓에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이웃집 아줌마와 같은 푸근한 이미지를 심으려고 무던히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엿볼 수 있는 브라질 여성의 이미지는 사회활동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라는 점일 것이다.



지우마 후세피

그런데 지젤 번천의 경우는 아름다운 외모와 청순한 이미지 탓인지 필자의 경우 처음 그녀의 사진을 보았을 때 보사노바의 대표곡인 「이파네마의 소녀」(Garota de Ipanema)의 아가씨 이미지가 떠올랐다. 이 노래는 1950~60년대 브라질 음악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린 보사노바(Bossa nova)의 거장 톰 조빙(Tom Jobim)과 주영 지우베르투(João Gilberto)가 불렀던



지젤 번천

노래로, 이파네마 해변을 거니는 아가씨의 모습을 무척이나 감미롭게 그리고 있다. 2010년 2월말 브라질에서 한창 여름이 무르익던 어느 날, 그 해변을 찾은 필자는 저녁노을에 물드는 이파네마 해변을 바라보면서 이파네마의 아가씨를 그렸던 그 음악이 작가의 상상에서 나온 산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 해변을 자유로이 거니는 브라질 아가씨 모습 그 자체가 자연스

럽게 음악으로 옮겨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하면 브라질 여성의 이미지는 대다수 리우 카니발에 등장하는 화려한 삼바 무희들에게서 연유할 것이다. 그녀들을 보다 보면 빼어난 몸매에 매우 관능적이면서도 항상 미소가 가득한 브라질 여성의 낙천적인 모습이 떠오른다. 특히 리우의 코파카바나(Copacabana) 해변은 세계적인 수영복 디자이너들이 새 상품을 구상할 때면 반드시 들르는 곳일 만큼, 스스로 디자인한 수영복을 입고 거니는 브라질 여성의 이미지는 리우의 환상적인 자연과 더불어 가히 몽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라질 여성의 이미지는 지우마 후세피처럼 정치·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여성, 지젤 번천처럼 청순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여성, 그리고 카니발의 무희들처럼 관능적이면서도 낙천적인 모습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언론을 통해 접하는 브라질 여성의 이러한 모습과 개방성은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글은



브라질 카니발의 화려한 삼바 무희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과거와 현재의 브라질 여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0년 6월 브라질 시사주간지 『베자』(Veja)는 1967년 『헤알리다지』(Realidade)라는 잡지가 특집으로 실은 당대 여성의 특징과 2010년 『베자』가 자체 조사를 통해 살펴본 현대 브라질 여성의 특징을 상호 비교한 특집을 내놓았다. 이 특집을 기준으로 보면 우선, 시대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특히 남녀 차별이 그리한데, 브라질은 우리나라보다 사회적·문화적으로 훨씬 더 개방된 사회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이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현재 발효 중인 헌법은 1988년 만들어졌고 이어 2002년 일부 수정되었다. 그런데 현 헌법과 수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브라질 남성은 결혼 첫날 밤 자신의 신부가 슯처녀가 아닐 경우 결혼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었고, 또 결혼하지 않은 딸이 처녀가 아닌 것으로 ‘간주’ 되



『베자』의 표지

면 아버지는 그녀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었다. 나아가, 1967년 자료이지만, 학교에서 성적표 등을 가정으로 보내면서 보호자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이때 보호자는 “아버지 혹은 자녀의 책임자” (Pai ou responsável) 라고 명시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학생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그 당시 브라질이 얼마나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사회였으며 또 얼마나 폐쇄적인 사회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다.

그런데 오늘날 브라질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엄청나게 달라졌다. 브라질 전국 가정 표본조사(PNAD)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오늘날 브라질 가정의 여성 가장은 약 34.9%에 이른다. 1970년엔 13%였고 1995년엔 22.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갈수록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성들의 권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징후는 아래의 도표에서처럼 먼저 브라질 여성의 정계진출에서 엿볼 수 있다.

	1967년	1994년	2010년
여성 연방하원 의원 수	409명 중 6명 (1.4%)	513명 중 30명 (5.8%)	513명 중 44명 (8.5%)
여성 연방상원 의원 수	0명	81명 중 3명 (3.7%)	81명 중 10명 (12.3%)
여성 주지사 수	0명	1명	4명
여성 시장의 수	3,951개 시 중 58개 시 시장 (1.5%)	4,972개 시 중 171개 시 시장 (3.5%)	5,555개 시 중 504개 시 시장 (9.1%)



룰라 대통령

아마도 브라질 여성의 정계진출이 정점을 이룬 것은 2010년 10월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브라질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40여 년 전을 생각하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 주인공은 지우마 후세피(1947년 12월 14일 생)이며 그녀는 세계에서 11번째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그녀의 대통령 당선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브

라질 여성 유권자의 역할이 암암리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유력 여론조사기관인 Ibope에 의하면 1차 예선이 끝난 뒤 실시된 세 차례의 여론 조사(10월 11~13일, 18~20일, 26~28일)에서 지우마는 남성 유권자로부터 각각 56%, 58%, 59%의 지지율을 기록함으로써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는 50%, 54%, 56%를 차지, 1차 경선에서 정확히 반으로 갈렸던 여성 유권자가 2차 경선이 시작되면서부터 지우마 후보에게로 방향을 틀기 시작하였고 거기에서 발생한 차이가 곧 양 후보(지우마와 주제 세하)의 최종 득표차이(56.05% : 43.95%)로 연결되었다. 다시 말하면 2차 경선에서는 여성 유권자의 지우마 후보 지지가 승패를 갈랐으며 그 결과 브라질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여성 유권자 수가 51.8%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현 대통령인 룰라의 후광을 업고 있었다는 점도 이러한 결과를 낳은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번 대선을 통해 볼 때 브라질에서 여성이 갖는 파워와 현실사회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아래 도표 참조).

	1967년	1994년	2010년
브라질이 여성에 의해 통치되면 더 나을 거라고 보는가?	77% NO	55% YES	56% YES
남편이 정치인이면 좋겠는가?	79% NO	90% NO	91% NO
우리가 민주국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53% YES	51% NO	36% NO
남편이 지목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	67% NO	90% NO	87% NO

한편 과거에 비하여 오늘날 브라질 여성의 정조관념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1996년 브라질 여성의 11%가 15세 이전에 성경험을 했다고 응답했으나, 2006년 32.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러니까 현재 브라질 여자 청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15세 이전에 성경험을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2006년 15~19세 여자 청소년 가운데 44.8%가 성경험이 없다고 대답했는데 이를 뒤집어 보면 20세가 되기 이전에 절반 이상(55.2%)의 여성이 첫 성경험을 한다는 의미가 된다. 1996년 이 연령대의 여성들 중 단지 32.8%만이 이미 성경험을 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1996년 여성의 첫 아이 출산 연령은 22.4세였지만, 2006년 평균 21세였다. 다시 말하면 브라질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20세라는 의미가 된다.

이들 수치를 보면 브라질이 성적으로 매우 조속하며 개방적이고 또 자칫 문란하다고 여길 수 있다. 사실 필자가 1986년 처음 브라질에 갔을 때 거리의 신문 가판에는 포르노 잡지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비디오 대여점에도 무수한 포르노 비디오들이

전시·대여되고 있었다. 당시의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지구 정반대에 위치하는 두 나라의 거리만큼이나 필자가 받은 문화적 충격도 컸다. 브라질의 이러한 경향은, 언론검열이 심하던 우익 군사독재(1964~1985년)로부터 민간정부로 권력이 이동하면서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던 자유화와 개방화의 물결과 연관이 있어 보였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 브라질 여성의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과거와 상당히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7년	1994년	2010년
특수한 경우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65% YES	74% YES	77% YES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은 비율로 성관계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52% YES	73% YES	54% YES
이성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57% YES	73% NO	84% NO
어떤 특정한 경우, 여성의 외도를 수용할 수 있는가?	59% NO	53% NO	67% NO
어떤 특정한 경우, 남성의 외도를 수용할 수 있는가?	80% NO	53% NO	69% NO

이 통계에서 특이한 것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여성의 외도에 대한 여성 자신들의 반대의견은 높게 나타난 반면(59% → 67%), 남성의 외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더 관대해졌다는 점이다(80% → 69%). 이는 1967년의 경우와 비교하면 정반대의 현상인데 해답은 2010년 남녀의 외도에 대한 반대비율이 각각 67%와 69%로 서로 비슷해진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1967년엔 남성의 외도보다는 여성 자신의 외도에 대하여 관대하였던 불균형한(?) 시

각이, 2010년 들어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불균형한(?) 시각’이란,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문화적 구속이 많았던 1960년대, 상대적으로 많은 자유를 누렸던 남성의 외도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과 근심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호모를 질병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1967년 67%가 YES라고 답했으나 1994년 54%로 줄었으며 2010년 83%가 NO라고 응답했다. 이혼율 역시 1967년 15세 이상의 전체인구 중 0.12%를 차지하였지만 2010년 1.75%를 넘어 40여 년 사이에 무려 1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관념의 변화는 여성의 자기실현이라는 문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여성으로서 완전한 자기실현을 이루려면 한 남편의 아내이자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1967년 81%가 YES라고 답한 반면에, 1994년 79%가 NO라고 답했으며, 2010년에는 1967년과는 정반대로 81%가 NO라고 응답한 것이다. 그만큼 전통적인 여성상이 변했다는 증거다. 아울러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1967년 20%가 YES라고 답한 반면에, 1994년과 2010년 각각 33%와 30%라고 답함으로써 결혼에 만족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여성들의 사회진출 및 경제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여성들은 일할 필요가 없는데도 일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1967년, 1994년, 2010년 각각 68%(NO), 86%(YES), 84%(YES)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출산율의 변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1960년 브라질 여성 1인당 출산율이 평균 6.28명이었던 것이 1991년과 2010년 각각 2.85명, 1.76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경우와 같이, 브라질 여성의 경우도 육아와 직장 생활을 동시에

해결해야하는 사회적 고민을 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브라질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1970년 그 비율이 20.8%였으나 2007년 42.4%를 차지, 두 배나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가난이 부부간의 금실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1967년, 1994년, 2010년 각각 64%(YES), 85%(YES), 84%(YES)로 응답했는데 “돈이 없으면 사랑도 멀어진다” 라는 우리의 속담이 브라질에서도 통하듯, 브라질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들의 생활 패턴도 1967년과 2010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시사주간지 『베자』는 양 시대의 여성핸드백에 든 소지품을 비교했다. 아래의 도표에서처럼, 그 소지품을 보면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인 측면에서 브라질 여성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1967년	2010년
집 열쇠	차 열쇠
박하사탕	미네랄워터
콤팩트 화장품	막대형 시리얼
머리빗	신용카드
동전지갑	젤 형태의
손수건	알코올(세척용)
3×4 크기의 사진들	피임약
선글라스	다이어리
담배 혹은 작은 켈런	선크림
립스틱	스마트폰
	립 글로즈

특히, 2010년 여성의 소지품에 자동차 열쇠가 들어 있는 것은 브라질 경우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미네랄워터, 신용카드, 스마트폰 등은 현대사회의 흐름을 반영함과 동시에 유행에 뒤지지 않으려는 그녀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젤 형태의 알코올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공중화장실 사용 등에 사용하는 위생 청결제로서 이는 에이즈가 확산된 이후 생겨난 새로운 풍속도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브라질 여성 사이에서도 명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인데 월 소득을 기준하여 A에서 E등급으로 나눌 경우, 중심의 C등급에 속하는 여성(월 소득 1,115~4,806헤알 계층, 1헤알=680원 정도)의 명품 품목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향수가 6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뒤를 이어 구두가 54%, 옷이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브라질 여성의 모습은 아마도 우리가 카니발에서 엿볼 수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를 수 있다. 특히 브라질은 면적이 크고 혼혈 국가인 만큼 피부색과 지역, 소득 등에 따른 사회적·문화적 특징이 각기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느 민족의 후손인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브라질 여성은 자신의 삶에 적극적이며 현실적이고 또 그런 만큼 자신의 행복 추구에 있어서 솔직하여 감정표현이 우리보다는 좀 더 직설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브라질 첫 여성대통령으로 선출된 지우마의 일성도 여성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었던 만큼 여성들이 움직이는 브라질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본다.